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1000번째 마을 달렸다

완도 신리마을서 기념행사...주민 체감형 복지서비스 2021년 8월 첫 운행...4년9개월간 3만1000여명 혜택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가 1000번째 마을 방문을 맞아 최근 완도군 신지면 신리마을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김승희 전남도 사회복지과장, 이범우 완도부군수, 신미경 전남도사회서비스원장, 마을 주민 등이 참석했다. 전남도립극악단 축하공연과 이동세탁차 운영, 자원봉사자 연계 주민 맞춤형 서비스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손사·손녀 사진을 액자로 제작해 주민들에게 뜻깊은 추억을 선물했다.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는 지난 2021년 8월 첫 운행을 시작한 지 4년 9개월 만에 1000번째 마을 방문을 맞았다. 운영 초기에는 코로나19 선별검사 지원으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 2022년부터는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기초검진, 인바디검사, 혈압·혈당 측정 등 보건서비스와 이·미용, 안마, 칼집, 키오스크 교육, 네일아트, 틀니·안경 세척 등 28종의 주민 체감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는 지금까지 3만1566명의 주민에게 25만4016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지난해 서비스 이용자 745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99.6%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승희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전남 행복버스는 단순한 이동서비스가 아니라 주민 곁으로 먼저 찾아가 삶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현장 중심 복지정책이다”며 “복지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마을까지 지속적으로 찾아가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백정렬 기자 holbu@gwangnam.co.kr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가 1000번째 마을 방문을 맞아 최근 완도군 신지면 신리마을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

광주자원봉사센터, 스리랑카 가족과 순천 불린투어

“국경을 넘어 함께 가꾼 세계의 정원” 상생과 포용의 자원봉사 가치 확산

광주 거주 스리랑카 가족과 외국인 주민 등이 순천국가정원에서 생태·문화 체험을 결합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17일 광주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거주 스리랑카 가족과 외국인 주민, 봉사자 등 50여명이 지난 10일 순천 일대에서 ‘글로벌 순천 불린투어’를 운영하며 포용과 상생의 자원봉사 가치를 실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 관광이 아닌 자원봉사와 생태·문화 체험을 결합한 참여형 활동으로 진행됐으며, 외국인 주민과 지역 시민이 함께 어울려 지역사회 공동체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순천국가정원에서 세계 각국의 정원 문화를 담은 꽃과 식물을 직접 가꾸고 정비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해 큰 의미를 더했다. 세계적인 정원 속에서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이 함께 흙을 만지고 꽃을 심으며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는 모습은 이번 활동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평가됐다. 참가자들은 정원 내 환경정화와 꽃밭 관리 활동 등을 함께 진행하며 ‘보는 정원을 넘어 ‘함께 가꾸는 정원’의 가치를 경험했다. 단순한 체험을 넘어 자신들의 손으로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간다는 자부심 속에서 자원봉사의 의미를 몸소 느끼는 시간이 됐다. 한 참가자는 “세계의 정원을 직접 가꾸며 내가 지역사회에 작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언어는 달라도 함께 꽃을 심고 웃으며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봉사자는 “순천국가정원이 세계와 연결된 공간인데, 오늘 활동도 마치 세계 시민들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최근 광주 거주 스리랑카 가족과 외국인 주민, 봉사자 등 50여명이 지난 10일 순천 일대에서 ‘글로벌 순천 불린투어’를 운영하며 포용과 상생의 자원봉사 가치를 실천했다.

가는 모습 같았다”며 “외국인 주민과 지역 봉사자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이번 불린투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남·광주 상생과 통합의 흐름 속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은 생활·경제·문화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공동 생활권으로, 자원봉사 또한 지역의 경계를 넘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류미수 광주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은 “순천국가정원에서 진행된 이번 활동은 단순 봉사를 넘어 사람과 자연,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상징적인 자원봉사였다”며 “전남과 광주가 함께 상생하고, 내·외국인 주민이 어울려지는 포용형 자원봉사 모델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

광주환경공단, 분뇨수거업체 직원 현장 격려 60명 대상...때 이른 더위 업무기증 노고 위로

광주환경공단(이사장 김병수)은 최근 분뇨수거·운반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사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행사는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광주환경공단 위생처리장 반입장에서 진행됐으며, 이른 더위 속에서도 도시의 위생을 위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뇨수거업체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11개 분뇨업체 소속 차량 37대의 차량, 직원 60여명이 참여했다. 공단은 행사에서 분뇨수거·운반업체 직원들의 업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분뇨 반입 계획을 공유했으며,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간식을 전달해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병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분뇨를 수거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



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분뇨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중위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시 내 정화조를 통해 반입되는 오수 및 분뇨는 일 1000t에 달하며, 이는 분뇨수거업체를 통해 광주환경공단 위생처리장으로 반입된 후 전처리 과정을 거쳐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되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 나주시 농촌 일손돕기 봉사

과수농가 찾아 배적과 작업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나주시 농업인 직원들과 함께 나주시지역 과수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일손돕기는 나주 대표 특산물인 배의 적과 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인력난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과 작업은 상품성과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작업이지만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인력이 필요해 농가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손돕기에는 농협 나주시지부와 농신보 나주권역보존센터, 나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했



다. 참가자들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 재배 농가에서 적과(열매숙기) 작업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고흥군, 3대 도자 전국 협력 네트워크 출범 강진 청자·양구 백자 등과 업무협약 체결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은 최근 박물관 강당에서 고려청자박물관, 양구백자박물관과 함께 ‘도자문화 활성화 및 콘텐츠 개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3대 도자인 청자, 분청사기, 백자를 아우르는 대표 도자 기관이 전통 도자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박물관은 소장한 역사·문화 자원을 공동 활용해 문화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문화 기반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박물관 소장 유물 및 현대 도자 작품을 활용한 순회·공동 기획전시 개최, 도자 문화 기반의 학술 연구 및 세미나 공동 개최, 각 기관 레지던시 입주작가 간 상호 교류 및 프로그램 공유, 콘텐츠 개발을 위한 소장 자료 대여 및 이용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한국 도자문화의 맥을 잇는 세 거점 도시를 하나로 연결하는 상징적인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석의 신비로움을 간직한 청자와 자유분방한 미학의 분청사기, 순백의 얼을 품은 백자가 만나 전시와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계자는 “출과, 장인의 정성이 뜨거운 열기를 견뎌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은 최근 박물관 강당에서 고려청자박물관, 양구백자박물관과 함께 ‘도자문화 활성화 및 콘텐츠 개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게시판

결론 ▲김중원·정연옥씨 장남 영진군, 채화석(광주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박순복씨 장녀 지우양=23일(토) 오후 1시 광주 서구 농성동 더 시그너스 웨딩.
일림 ▲일가정양림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062-1366.
▲사람마루협동조합 취약계층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임시 상담.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클래지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운세 (음력 4월 2일)

- | | | |
|--------------------------------------------------------------------------------------------------------------------------------|-----------------------------------------------------------------------------------------------------------------------------------|-----------------------------------------------------------------------------------------------------------------|
| 48년생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가 풀린다
60년생 다들 일이 있더라도 참고 피하라
72년생 오래 지속되니 각오하고 임해야 한다
84년생 출세나 진급수가 보인다
96년생 마음 자제력 없으니 조심하라 | 49년생 어쩔 수 없이 어려우려만 하니 고통이다
61년생 일의 결실이 나의 뜻과 맞지 않는다
73년생 앞으로 나아가려 할수록 힘들겠다
85년생 처음은 힘들어도 나중엔 큰 기쁨이다
97년생 전공을 살릴 수 있겠다 | 50년생 일복이 많아 건강을 잃을 수 있다
62년생 성사 가능성이 높다
74년생 이뤘 놓고 말해도 늦지 않다
86년생 부동산 취득 할 수도 있겠다
98년생 민회하기에 좋은 날이다 |
| 51년생 아랫사람 말을 받아들이면 유익 할 것
63년생 금전에 관한 일들은 일단 미뤄라
75년생 재물 운이 좋으니 사소한 계획도 성공
87년생 상부상조 해야만이 실행할 수 있다
99년생 귀하의 계절이 왔다 | 52년생 가족 불화의 징조 보이니 주의하라
64년생 말이 앞서면 주변사람과 마찰 생긴다
76년생 앞서가지 말라 겨우 현상 유지되리니
88년생 필요한 시점에 놓일 것이다 | 53년생 부담스럽다면 체면 불구하고 피해라
65년생 우정에 금갈 수 있으니 대화를 미뤄라
77년생 지금은 때가 아니니 조용히 관망하라
89년생 동남 양방에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 |
| 54년생 몸은 고달프고 스트레스 많이 쌓인다
66년생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릴지도
78년생 필연적이려면 적극 나서는 것이 좋다
90년생 용돈 운용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 | 55년생 마음먹은 대로 행해도 된다
67년생 본인이 충실하는 것이 좋다
79년생 지금부터 시작이다
91년생 일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겠다 | 56년생 답답한 일이 해결되지 않는 시기
68년생 본격적으로 시도해도 될 것
80년생 오래 끌어오던 빚을 받을 수도 있겠다
92년생 스트레스 해소하는 날 |
| 57년생 감 잡히고 길이 보이지 않는 듯 하다
69년생 공극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형국
81년생 기대보다 훨씬 나은 결과가 보인다
93년생 지혜와 재치로 만민의 사랑을 받는다 | 58년생 남비 말고 침묵 지킬 때
70년생 재물이 손에 들어오지만 동업은 피해라
82년생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낫다
94년생 어깨 펴고 자신감 기질 때 | 59년생 분명히 인식시켜 줘야 한다
71년생 마음을 비우고 대세를 관망해야겠다
83년생 초지일관하면 그 뜻을 이룰 것
95년생 가족의 먼저 생각하라 |